

하늘의 씨앗 The Good Seed

위클리프 캐나다 한인사역 소식지 / Wycliffe Canada Korean Ministries Newsletter

특집:
캘거리한인장로교회 선교대회

PNG 비전 여행

교회를 위한 선교정보:

갈릴리교회 선교학교

퍼스펙티브(Perspectives in Korean)

나의 군사를 세우라

2권 1호 / Winter 2009

Published by/발행처
Korean Ministries
Wycliffe Bible Translators of Canada
워클리프캐나다 한인사무국
4-14 Steinway Blvd.,
Etobicoke, ON M9W 6M6
Phone: 416.996-0345(강창석 선교사)
Eastern Regional Office
Toll Free: 866.702-5273
Fax: 416.675-7504
Kroffice_Canada@Wycliffe.ca
www.wycliffe.ca

발행인/Publisher:
KM Director/한인사무국디렉터
ChangSeok Kang/강창석선교사

편집인/번역/교정:
Editors/Translators/Checkers
Daniel Yoon/윤기태선교사
Gyojun Lee/이규중선교사
Joseph Park/박요섭선교사

디자인/Design:
Carmen Lee/이효린
Eddie Lee/이홍석

인쇄인/Printed by:
Sun Printing House Limited
Toronto, Ontario, Canada
www.sun-printing.com

Wycliffe Canada's Vision Statement
워클리프캐나다 비전선언문
A world
where translated Scriptures
lead to transformed lives
among people of all languages.
모어로 번역된 성경을 통해
모든 언어 종족의 삶이
번혁되게 하는 사역

표지 설명:
캘거리한인장로교회에서 열린 선교대회
그룹별 테이블. 세계선교의 작은 불이
되기를 염원하는 듯, 예쁘게 장식된
촛불이 참가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제호 설명:
지난 호부터 정산 정혜수선생(나이아가라
한인장로교회 은퇴안수집사)께서
워클리프 사역을 후원하는 마음으로
써주신 붓글씨를 일부 편집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크고 작은 행사들과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편집팀이 하나가 되어 이 소식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역해주시는 여러 교회의 수고와 헌신이 아니면 매번 이와 같은 소식지를 만들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독자 여러분들께서 저희 소식지를 애독해주시고 좋은 평가와 격려를 더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려운 과정이지만 최종 교정이 모두 끝나고 인쇄소에서 잉크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인쇄물치를 건네 받는 순간에 느끼는 감동과 희열은 그야말로 산모가 고대하던 아기를 보는 기분과도 같습니다.

이번 특집에서는 작년 11월에 있었던 캘거리한인장로교회 선교대회의 성과에 대하여 교회와 인도자의 글, 사진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선교대회를 치렀지만 캘거리 대회는 저희들에게도 큰 격려가 되는 은혜로운 행사였습니다. 지역교회와 선교회가 아무런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 기도하며 준비한 선교대회의 모습이 바로 그토록 외치는 세계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지역교회와 선교 단체 간의 협력선교 모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피푸아 뉴기니 정탐 여행은 오랫동안 수 차례의 일정변경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중에 사역과 사역지 결정을 위해 참가한 박요섭 목사와 김영돈장로의 이야기입니다. 남태평양의 이 섬나라는 약 600만 명의 인구에 약 800개의 부족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성경번역이 이루어졌음에도 아직 수백의 부족들이 자기 모어로 된 성경이 없어 말씀의 고갈을 겪고 있습니다. 이 글만 보아도 헌신된 일꾼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21세기는 세계 선교의 마지막 주자가 결승점을 향해 뛰는 때라고 합니다. 이 과업은 선교단체 혼자 할 수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지역교회 혼자서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선교회와 지역교회가 협력할 때에만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선교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때에 세계선교의 마지막 남은 과업을 완수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전문적인 노하우와 선교 인프라를 구축한 선교단체와 자원(인력/재정/기도후원)의 원천인 지역교회가 협력할 때 '동역의 종합예술' 이라고 말하는 선교가 열매맺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희들의 소식지가 이러한 협력에 기여하는 의사소통의 도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 더욱 많은 분들과 교회의 참여를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동역하는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캘거리한인장로교회 세계선교대회 첫걸음 선교이야기

이규준 선교사



행사를 준비하기까지...

작년 11월 중순, 캘거리한인장로교회에서 세계선교대회가 위클리프와의 협력으로 치러졌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뤄진 8월말 캘거리에서의 준비 모임 때 선교대회를 치르게 되는 목적과 내용, 방법 등을 위클리프와 교회 선교부가 적절하게 의논할 수 있었습니다. 위클리프는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을 책임졌고, 교회선교부는 남은 두 달 가량을 홍보와 참가대상자 확보를 위한 물밑 작업 및 여러 가지 행사 준비에 착수 했습니다.



첫걸음 선교이야기란?

첫 걸음 선교이야기는 「미션 퍼스펙티브」(영어제목, *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를 기초로 하여 개발했습니다. 선교의 총체적 이해를 위해서 가장 좋은 교재와 프로그램이 바로 미션 퍼스펙티브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관점을 복합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책의 내용을 제대로 소화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선교의 총체적 이해를 돕는 동시에, 선교의 열정을 불러일으키고자 한 것이, ‘첫걸음 선교이야기’ 워크북을 만들게 된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첫걸음 선교이야기는 강의와 함께 토론, 게임 및 활동 등 참가자들이 스스로 동참하며 오감을 통해 배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클리프의 여러 프로그램들을 응용하여 각 세션마다 적용했습니다. 실제로 행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이 글의 맨 뒤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첫걸음 선교이야기’는 각 교회의 형편에 맞게 다양한 형태의 ‘맞춤식’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캘거리한인장로교회 선교대회

이제 독자들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행사 직후에 이번 행사 준비 총책을 맡은 유민주 집사님과 최창선 담임목사님이 신문(*크리스천월드*)에 기고한 글에서 주요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행사의 준비과정과 동기 목적 등을 좀더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사 전문은 저희 위클리프 캐나다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wycliffe.ca)

[최창선 목사의 글 요약]

세 가지로 요약되는데, 첫째는 전문기관과의 연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둘째는 장기적 안목을 갖고 준비된 선교가 필요한 점, 마지막으로 평신도사역의 중요성 등이다. 교회는 최선을 다해 후보생들을 길러내고 후원하며, 선교회와 연합하여 사역을 이뤄가고 기타 훈련도 노후자가 많은 선교단체에 이웃소신을 하는 등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필요하다. 또한 제대로 된 훈련을 통해 선교사나 보내는 교회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하는 선교가 필요하다. 또한 교회구조가 수직적인 상하복종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상호동역관계로 바뀌어야 한다. 목회자는 말씀과 방향제시와 주요 결정을 담당하고 사역의 많은 부분을 소위 평신도사역자에게 위임하여 동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협력이 증진되어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나라 건설을 감당하게 되길 바란다.



[유민주 집사의 글 요약]

캘거리한인장로교회는 여느 교회들처럼 다섯 목장 (22개지역)이 5개 지역의 선교지에 협력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있지만, 선교에 대해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교인 전체가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전문성 있는 단체인 위클리프를 선정하여 사진 협의했고, 참가자들도 사진등록을 통해 계획성 있는 집회가 되게 했다. 행사장 역시 아늑하면서도 토론과 조별 활동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 꾸몄다. 배너와 큰 지구본, 만국기, 각 민족 복장 및 언어 구사 등 각 목장별로 선교지와 사역을 홍보하도록 미리 준비해 했다. 교인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내었고, 위클리프의 좋은 프로그램으로 효과적으로 이뤄진 세미나였으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이었다.



행사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이 일을 예비하시고 행하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때마침 이뤄진 캘거리 방문과 논의, 캘거리한인장로교회의 내적인 준비, 선교부의 최선과 열정이 담긴 사전 계획과 준비, 담임목사님의 탁월한 식견과 위임의 지도력, 많은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등이 함께 이뤄졌던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번 대회를 통해 두 분의 헌신자가 생겨났습니다. 이미 선교에 뜻을 두고 정비 기술을 익히던 김정선 집사님이 선교를 위한 항공정비기술로 헌신기로 하셨습니다. 이번 대회를 준비하는 데 중심역할을 했던 유민주 집사님도, 오래 전부터 선교단체에 헌신하려는 꿈을 실행에 옮기셔서, 캘거리 지역에서 저희 위클리프 한인사역을 대표하는 분으로 섬기기로 하셨습니다.

두 분의 훈련을 위해 다시 캘거리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 이번 행사의 후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익숙지 않은 사전 등록 문화에 이번 행사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등록한 분에 맞게 자리 배치와 조편성 이름이 달린 워크북 등을 준비함으로써, 등록하지 않고 행사 당일 무작정 왔던 분들이 본의 아니게 무안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감사한 것은 행사 다음 주간에 내년의 사역자들을 모집하는 사역홍보 주간이었는데, 선교부에 20명이 훨씬 넘는 분들이 등록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적실성이 입증된 것이기도 했습니다.

행사의 목적이었던 선교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과 나아가 헌신까지 결과로 이끌어 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계속해서 캘거리한인장로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선교이야기들을 기대합니다!

저희 한인사무국에도 이번 행사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팀웍의 중요성에 대한 확입니다. 디렉터 이신 강창석 선교사님이 모든 것을 조율하고, 각종 활동의 내용을 보충하며, 시간과 강의의 완급을 조정해주셨습니다. 이규준 선교사와 박오섭 선교사가 강의의 내용을 논의하고 나누어 진행했으며, 적절한 시간 배분과 내용 점검 및 업그레이드를 통해 서로를 도왔습니다. 참석하신 많은 분들에게 적절한 파워포인트 프리젠테이션으로 강의내용이 쪽쪽 들어왔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이뤄진 행하였기에 사역의 분배와 시간 안배가 너무나 중요했고, 이 모든 과정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저희 팀에게 지혜를 주시고 한 마음을 더해주셨습니다.



다양한 모듈로 이뤄지는 이후 행사 계획

토론토한인장로교회. 1월 17일~19일 사흘 동안 토론토한인장로교회에서 리더십을 위한 ‘첫걸음 선교이야기’가 진행됩니다. 편집 일정관계로 자세하게 실을 수는 없지만, 이 프로그램이 각각 교회의 형편에 맞게 ‘맞춤 형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인장로교회에서는 오는 5-6월에 리더십에서 평신도 및 영어권으로 확산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분한인교회. 3월 한 달간 매 수요일 예배와 주일 촌모임 시간을 활용해 ‘첫걸음 선교이야기’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수요일에는 예배와 함께 본래 있던 촌장 교육모임시간까지 연장해서 리더 훈련이 실시됩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주일 오전에 있는 촌모임 시간에 일반성도들에게 나눠줍니다.

위클리프 캐나다 한인사무국은 좀더 많은 교회들과 이 프로그램을 나누며 좋은 협력관계로 발전해나갈길 기도하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



PNG Vision Trip

박 요섭 선교사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 11:28)

지난 10월 중순 동부에서 한인디아스포라 선교사 부부의 인도로 김영돈 장로님과 함께 Papua New Guinea (이하 PNG) 비전여행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지난 ‘하늘의 씨앗’ 2호에 소개되었던 김남수/이덕신 선교사님의 사역지인 와이마, 나라, 가버디, 도우라 종족 마을들을 비롯하여 동부 고산지역에 있는 우카룸빠(Ukarumpa)의 SIL 센터와 수도 포트모레스비(Port Moresby)를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의 상황과 필요들을 살펴보고, 캐나다 한인디아포라들이 담당할 수 있는 사역들을 찾아보는 것이 이번 여행의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PNG는 적도에서 남위 10도 사이에 위치한 나라로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수도를 비롯한 해안가는 30도 전후로 무더운 날씨였지만, 센터가 위치

한 고산지대는 감사하게도 25도 정도에 아침저녁으로는 약간 선선한 가을날씨 비슷한 날씨였습니다. 뉴파푸기니 섬 동쪽 반을 중심으로 주변의 섬들을 포함하는 PNG는 그 면적은 남한의 약 5배에 달하는 크기이지만 내륙의 밀림 지역이 워낙 짙고 접근이 쉽지 않아 6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선교적으로 볼 때 PNG는 대단히 독특한 형태의 선교지입니다. 종교인구분포로 보면 파악된 인구의 95% 정도가 각 종파의 기독교 인구로 파악되는 이른바 ‘기독교국가’인 PNG는 겉으로만 보면 지구상의 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복음화’된 곳으로 생각되는 곳입니다. 곳곳의 마을에 교회들이 있고 현지인 사역자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외부인의 ‘선교’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곳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피상적인 통계를 넘어서 들어가보면 실상은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600만 명 밖에 안 되는 인구에 800개가 넘는 언어가 사용되는데, 그 중 성경이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거나 최소한 현재 번역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말로 읽고 들을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언어는 360개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현재 300개 이상의 언어에서 성경번역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아직 그들을 위한 사역자가 없어서 간절히 번역선교사를 필요로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많은 PNG 사람들이 자신을 기독교인이라 생각하지만 성경이 번역되어 있어도 아직 제대로 읽거나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다수이고 (성경사용과 문해교육이 필요한 경우), 또는 한 구절의 말씀도 자신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지 않아 기독교인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서 (성경번역이 필요한 경우, '전혀 비기독교적인' 기독교국가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평화로운 것 같은, 그러나 그 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이들이 아직 참 쉼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곳) 바로 PNG였습니다.

이곳 PNG는 몇몇 도시를 제외하고는 아직 사회기반시설이 제대로 확충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캐나다에서는 주변에서 쉽게 공급받을 수 있는 성경번역 사역을 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들이 이곳에서는 매우 구하기 어렵고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성경번역이 시작된 산악지대에 SIL 센터가 만들어져 있어 그 부족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무행정, 자녀교육을 위한 초등/중고등학교를 비롯해 항공기 운항 및 정비, 자동차 정비, 목공, 건축, 출판, 심지어 클리닉과 소방서까지, 우카룸빠 센터에서 다양한 직종의 지원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동역하는, 말 그대로 '함께 하는 성경 번역'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뿐 아니라 현지인들을 훈련시켜서 동역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역도 무척이나 필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우카룸빠 센터에서 진행된 STEP*훈련의 마지막 시간들과 졸업식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졸업식에서 지난 호 '하늘의 씨앗' 에 소개되었던, PNG의 교육개혁을 위해 수고했고 성경번역에도 동참하고 있는, 피터 바키를 만나 교계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은 또 다른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현지인 성경번역 단체인 BTA 를 방문했을 때 만났던 한 자매를 기억합니다. 자신은 다른 이들보다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기에 감사하게도 공용어를 통해서나마 주님을 알게 되었지만 아직 자신의 말로 듣지 못해 갈굼함이 있고, 대부분의 자신의 중



현지인 성경번역 단체인 PNG BTA (Bible Translation Association) 우카룸빠 사무실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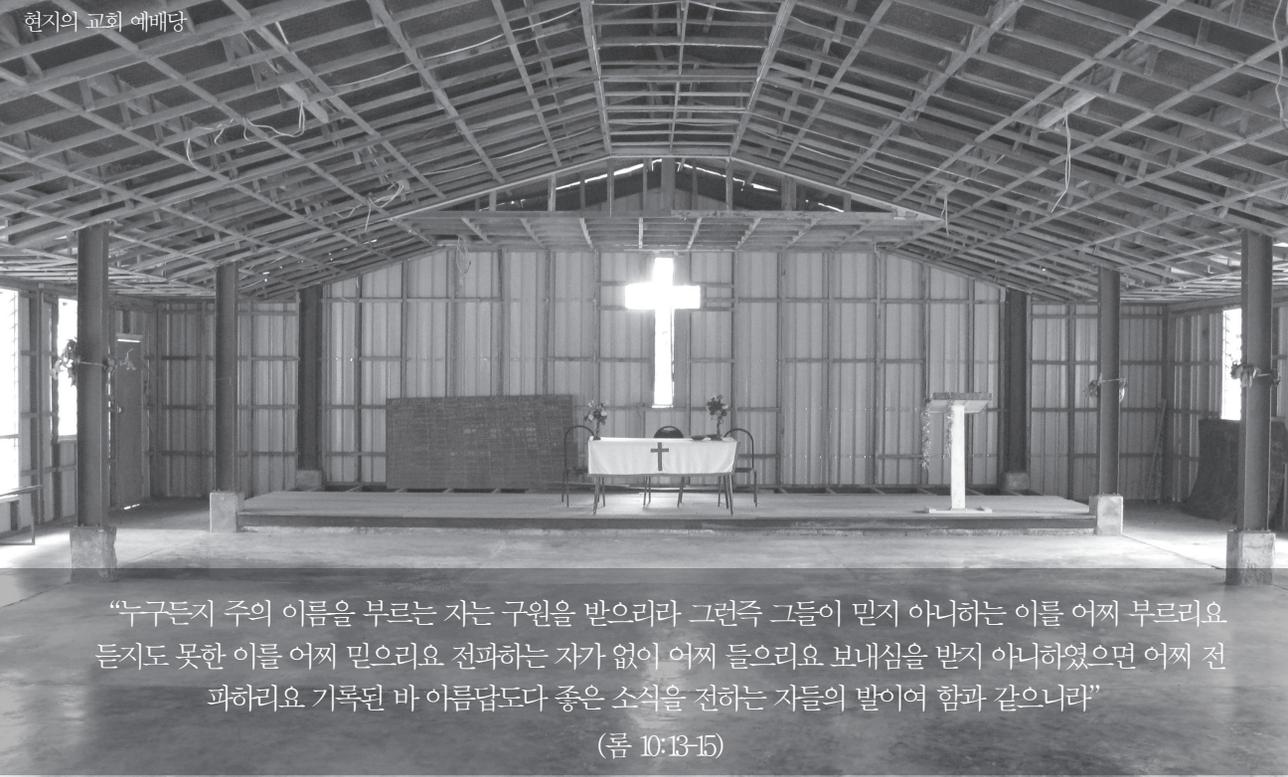


자동차 정비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영돈 장로

족들은 그런 기회조차도 얻지 못한 채 아직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상태로 방황하기에 자기 종족 말로 성경번역이 이루어질 길 간절히 구하던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

PS: PNG비전여행 후 박오섭 목사 부부와 김영돈 장로 부부는 하나님의 마음을 좇아 보내심을 받은 대로 각자의 달란트를 좇아 현지에서의 사역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STEP훈련은 PNG 곳곳에서 자신들의 종족들에게 자신들의 말을 가르치는 문해교육 교사로 자원한 현지인들이 2년간에 걸쳐 센터에서의 훈련과 현지실습을 통해 배워 지도자로 세워지는 귀한 훈련프로그램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이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롬 10:13-15)



의료/간호



소방서



컴퓨터/가전 서비스



가구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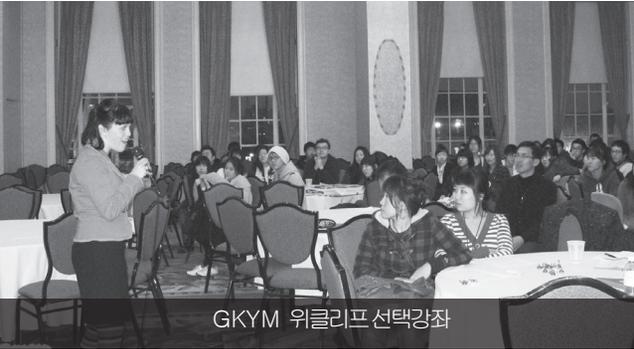


선교자녀 학교



수도의 포트 모레스비의 ING BIA 사무실

사진으로 보는 지난 행사



GKYM 위클리프 선택강좌



GKYM 위클리프 부스 언어습득시연



Upstream Concert - 영락교회



첫걸음선교이야기-토론토한인장로교회 "나를 보내소서"



첫걸음선교이야기-토론토한인장로교회



헌신자 및 관심자 오리엔테이션

다양한 동역 의 기회

위클리프사역에 대한 바른 이해!

많은 분들이 성경번역선교회라는 이름 때문에, 위클리프에는 오직 성경번역 하는 사람만 필요한 줄 압니다. 그러나, 성경번역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약 350 개가 넘는 많은 일들이 동시에 협력해서 이뤄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지혜와 경력, 기술 그대로 가져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다양한 동역의 기회 1: 기도사역 (3) BPP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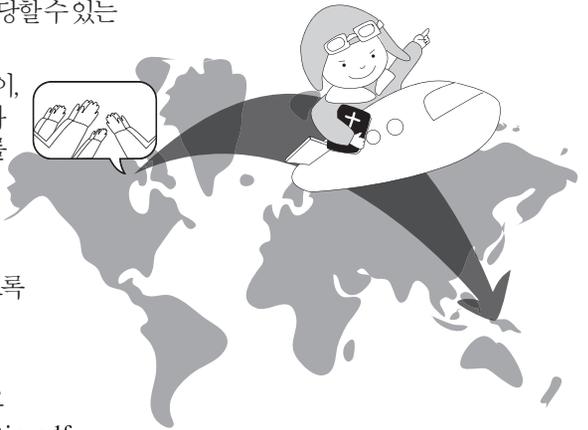
Bibleless People Group Prayer Project

여러분의 기도로 아직도 성경이 없는 부족들이 있는 곳에 선교사가 파송 되게 해주십시오!

2200여 개가 넘는 언어종족에 아직도 성경번역 작업에 헌신할 선교사가 가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의 비전은 2025년까지 모든 필요한 언어에 성경번역 작업이 착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가지들을 위해서 기도 해주십시오.

- 그들에게 말씀이 주어지도록, 이를 위해 언어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선교사가 갈 수 있도록(롬 10:17)
- 대부분 사회/정치적으로 소외되고 착취당하는 이분들이, 말씀을 통해 자기 정체성과 자존감을 찾고, 문해사역과 각종 교육을 통해 정당한 대우를 받는 국민들이 되기를 (행 17:27)
- 선교사 자녀를 위한 교사, 현지인의 각종 교육을 위한 지도자, IT 기술자, 항공, 정비, 건축, 각종 관리직 등등 다양한 협력사역을 감당할 선교사들이 파송될 수 있도록 (마 9:38)

- * 기도편지를 받아서 기도해주세요.
- * 위클리프 웹사이트에서 기도편지를 다운받아주세요
<http://www.wycliffe.ca/korean/pdf/pray-bulletin.pdf>
- * 교회 웹사이트에 기도버튼 링크를 달아주세요.
- * 여러분의 각종모임에서 위클리프 기도제목으로 기도해주세요.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이나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한인사무국으로 문의해주세요.



갈릴리교회
Mission Perspective ㉮ 마치고

이규준 선교사

작년 봄 글로벌 컨퍼런스 이후로 위클리프와 동역선교를 약속해주신 갈릴리교회(담임목사 임수택)에서는, 지난 해 5월 2주에 걸쳐 Discover Wycliffe 행사를 가졌고,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미션 퍼스펙티브 과정을 개설했다. 15명으로 시작하여 최종 11명이 마지막까지 수료했다. 10주 과정으로, 거의 매 주일 주교재인 「미션 퍼스펙티브」(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를 두 장씩 읽어가며, 연습문제 풀이, 발제와 토론, 강의 등으로 두 시간씩 소화해냈다. 이에 결하여, 우리나라 초기선교를 잘 엿볼 수 있는 '조선회상' 과 근대 선교의 세 기수, 윌리엄 캐리, 허드슨 테일러, 카메룬 타운젠트 등의 전기를 읽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의 소감을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정리해보았다. (부부 가나다순으로)

김도준/김화선: (夫) 기독교의 선교는 이기적이고 배타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전통문화를 파괴하는 것이라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미션 퍼스펙티브를 통해서, 복음이 각 문화에 맞게 제대로 전해지게 되면, 타락한 문화 속에 있는 악한 요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고, 오해가 풀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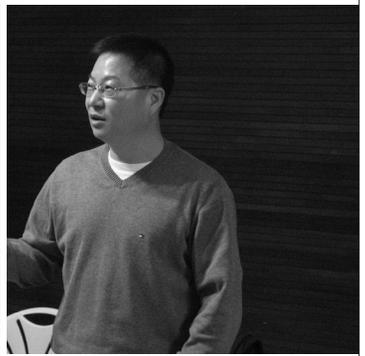
(婦) 좋은 내용들을 많이 배웠지만, 쉽게 제 삶의 말로 바꿔보면, 선교는 자식을 사랑하고 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지의 사람들을 동일하게 품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명관/유영미: (夫) 모태신앙으로 교회 안에서만 주신 탕렐트(찬양)로 봉사했는데, 5년 전 담임목사님 권유로 단기선교에 참여함으로써 선교의 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가 꼭 멀리 가야만 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서, 일터에서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했는데, 이번 퍼스펙티브

브 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인사치레로 시작했는데, 강의내용이 너무 좋아 갈수록 빠져들었습니다. 단기선교 때 했던 일들이, 이번 과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되었고, 더 통합된 인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婦) 단기선교가 이해의 전부였고, 남편이 말한 것처럼 '우리 나라에 복음 전해준 캐나다 선교사님들에게 빚진 마음으로 사역한다' 고 가게 오시는 서양인들과도 나누었습니다. 이번엔 문화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면서, 예전에 니카라과에서 양푼(대야)에 담긴 음식을 먹지 못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불결하다며 다른 사람들까지도 먹지 못하게 했던 것이 너무나 후회스러웠습니다. 이제는 저희의 단기선교가 더 풍성해질 것을 확신합니다.

예영미: 전 언제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고 그 은혜가 크기에 부담을 갖고 있을 뿐더러, 역사 속에서 볼 수 있는 선교사님들의 삶이 도전이 되어, 빛을 갠 심정으로 최선은



다해 선교에 동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배웠던 것을 다시 되짚어보면서 더 큰 도전을 받았습니니다.

이영진/이미혜: (夫) 조선회상을 읽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니다. 닥터 홀 일가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너무나 귀했습니다. 전 30대에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내가 어려서부터 믿었다면 20대에 그처럼 헌신할 수 있었을까 많이 생각했었습니다.

(婦) 사실 선교에 대해서 어떤 상채 같은 게 있었나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낙도선교를 열심히 했는데, 개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거든요. 헌데 이번 선교학교를 하면서, 얼마나 무지한 상태에서 자기 의만 가지고 선교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해에 대한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데, 선교가 정말 선교지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분들을 배우고 이해하려는 노력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언어와 문화 습득이 중요하고 그 핵심에 있는 세계관 이해가 참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이제 남은 반생을 어떻게 선교하면서 살 수 있을까 심각하게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임광애: 선교란 '하나님이 잃어버린 사람과 세상을 찾으시는 것' 이란 설명에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니다. 제 섬김의 범위가 교회와 가까운 지역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이제는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선교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단기 선교나 다른 선교사역에 임할 때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과정을 통해서, 선교가 제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겠다고나 할까요!

황정하: 성서신학원 과정을 통해 성경에 대한 이해가 많이 깊어져서 참 감사했는데, 이번 미션 퍼스펙티브 과정을 통해 선교에 대해 더 포괄적이고 깊이 알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실 토요일 저녁 할 일도 많고 여러 가지로 힘든 시간이었는데,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었기에 피곤과 분주함을 물리치고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선교에 직접 동참하지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단기선교부터 참석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마지막 시간에 최중세 집사님이 감기로 못 오시는 바람에 나눌 수 없었지만, 언제나 성실하게 준비해오시고, 발제와 함께 의미 있는 질문으로 전체 과정에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전체를 책임지고 인도한 사람으로서, 다른 미션 퍼스펙티브 과정보다 진지하고 심도 있는 토론과 강의가 이어진 것에 대해 너무나 감사했다. 또한 토론토론회인장로교회에서 여러 단계 선교 훈련을 마친, 이용수, 김형근/인인숙, 김정연 등 네 분이 그룹토론 인도 및 숙제 점검자로 동참해서 많은 기여를 해주셨다. 이 지면을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이 모든 행사가 가능하도록 도와주신 임수택 담임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



‘퍼스펙티브스’ 코스를 소개합니다

웨인 매튜스(Wayne Matthews) / 퍼스펙티브스 캐나다 전체 코디네이터, OMF 동원 대표

퍼스펙티브스는 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라는 책 제목이며 동시에 이 책을 교재로 한 15주 단위 훈련과정을 줄인 말입니다. 참가자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에 눈을 뜨게 하고, 그분의 전세계적 목적을 위해 방관자에서 참여자가 되게 하는, 세계선교를 위한 제자훈련 프로그램입니다. 협력 교회나 혹은 다른 장소를 빌려 진행되는 이 코스는, 각 주제별로 전문분야의 강사를 모셔서 각 과를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참가비가 있고, 매 주마다 지정된 분량을 읽어오게 되어 있는데, 참여하는 분들의 삶을 바꿔놓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퍼스펙티브스는 1992년부터 캐나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현재까지 BC부터 온타리오, PEI에 이르기까지 캐나다 전역에서 약 2000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는 헌신된 사람들을 위한 코스이며, 창조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마음을 맞추어가면서 생각을 바꾸고 순종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자발적으로 시작된 이 노력을 통해, 정말 많은 분들이 그저 생각만 해보던 것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전세계적 구원사역에 동참하게 된 예가 참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를 품는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퍼스펙티브스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홍보하는데, 이유는 참여자들에게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지를 깨닫게 하는, 아주 확실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퍼스펙티브스 코스를 통해 선교에 헌신하게 된 선교사 후보생들을 얼마든지 실제로 들 수 있습니다. 이 코스를 하게 되면, 개개인의 삶이 바뀌는데, 지역교회에서도 더 많이 헌신하게 되는 것은 물론, 이곳 캐나다에서도 타문화권 사람들에게 전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다른 곳에 전파하려 해의 선교로 헌신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퍼스펙티브스에 대해 이런 말을 합니다.

“퍼스펙티브스 코스를 들으면 더 이상의 평범한 삶이란 없습니다!”
- Floyd McClung, All Nations Training Center 국제 책임자 -

“성도들이 선교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싶은 교회, 좋은 타문화권 사역자가 되고 싶은 개인들에게 필수 코스입니다.”
- 어느 목회자의 말 -

“선교를 선택 사항이라고 생각했는데 퍼스펙티브스 코스를 통해 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선교란 오로지 하나님의 일이며, 그분이 제가 될 것 같길 원하시는 가하는 게 중요하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지요”
- 어느 학생의 말 -

이 코스를 통해 캐나다 교회들이 많은 유익을 얻었다고 확신하며, 이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캐나다 실정에 맞게, 캐나다 안의 재원을 활용할 때입니다. 이제는 더 많은 교회들이 선교에 동원되게 하기 위해서 캐나다의 민초(즉 평신도)들이 성장하고 지속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울 때이며, 이를 위해 사람들을 모으며 행사를 준비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마침 이 시점에 위클리프 캐나다(한인사무국)와 연결하여 이 사역을 하게 되어 참 기쁩니다.

이로 인해 자체적으로 이 일을 진행하도록 돕는 것에서부터 웹사이트를 개편하는 일까지 많은 일들을 해야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더 많은 학생들/참가자들이 캐나다 전역의 요충지에서 이 프로그램에 참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분의 전세계적 계획에 동참하여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퍼스펙티브스 프로그램의 목적입니다! 🌱

Perspectives is the short name for “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a dynamic 15-lesson discipleship course aimed at opening people’s eyes to what God is doing in the world— helping them move from being spectators to participants in His global purposes. Held at cooperating churches or other venues, the course features different guest speakers—expert in their topic— for each lesson. Students pay fees to attend this intense, valuable, life-changing series of study, and are encouraged to complete assigned readings between classes.

Perspectives has been running in Canada since 1992, and more than 2000 students have taken the course in communities from BC to Ontario to PEI. It’s geared for any committed disciple of Jesus and will challenge thinking and encourage obedience as hearts are more closely aligned to God’s heart for His creation. This volunteer-run endeavour reports numerous examples of how the course has moved people from thinking about, to actually getting involved in God’s global mission of redemption— becoming World Christians.

“We promote this as ‘A Journey with God’ because we see the direct impact it has on individuals as they understand God’s global purpose and our role in it” said Wayne Matthews, Perspectives Canada Coordinator, and who also works as Director of Mobilization for a mission organization. “In our mission, we can point to several candidates for whom Perspectives was the tool God used to move them to commit to ministry. And there are many cases of students making profound changes in their lives, from greater involvement in their local church, to reaching out cross-culturally in their home town, to families moving to other countries to spread the Good News of God’s love”.

Here is what some people are say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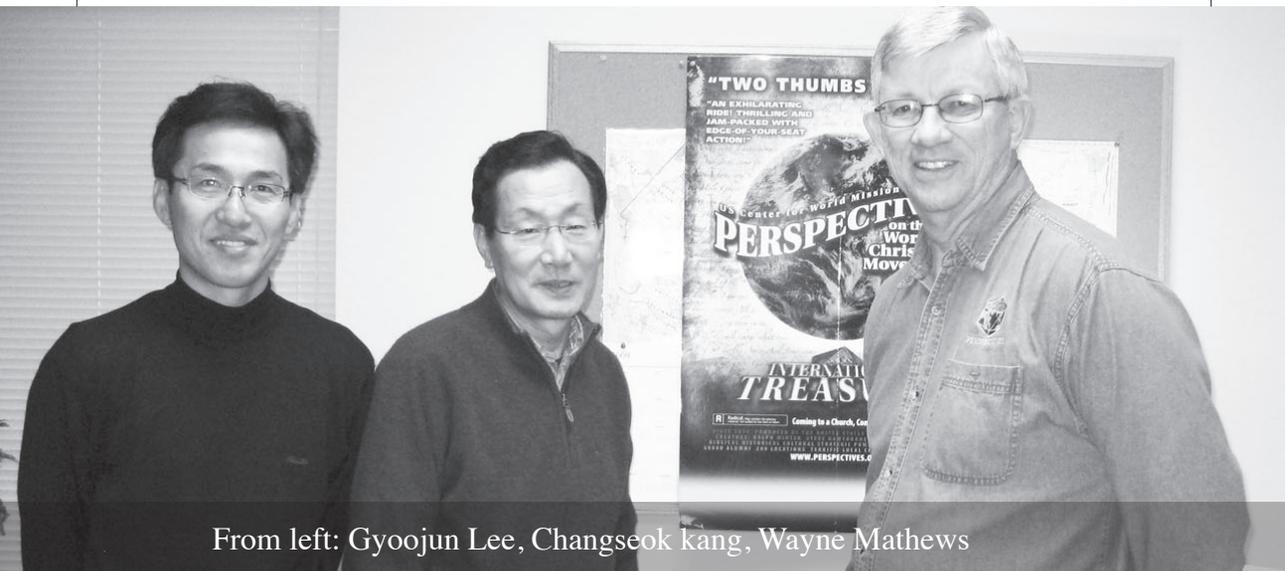
“Take Perspectives-it’ll ruin you for the ordinary!”
- Floyd McClung, International Director of All Nations Training Center -

“For any church aspiring to motivate its parishioners towards missions, or persons preparing to be effective cross-cultural workers, this is a must course.”
- Church Pastor -

“To Go or not to Go, that was my Question. Perspectives made me rethink my attitude; it’s about God and what He wants me to do. No more excuses.”
- A student -

“We’re convinced that the benefit to the church in Canada has only begun, but we also believe we have to customize the course for a Canadian audience, using Canadian resources”. “Now”, said Matthews, they face the task of recruiting and organizing volunteers “to facilitate the growth and stabilization of this truly Canadian grassroots force for mobilizing the church. Perspectives Canada is delighted to partner with Wycliffe in the mobilizing of World Christian through The Perspectives Course.”

Everything from deciding its governance to revamping the web site is on the agenda, said Matthews. “But what’s most important is enrolling hundreds more students in courses in all key centers in every province. . . . God’s people involved in His world-wide plan for His Glory— that’s what this is all about. 🌱



From left: Gyoojun Lee, Changseok kang, Wayne Matthews



나의 군사들을 세우라

Build Up My Kingdom Workers

김영수 선교사

청년시절 저에게는 한번밖에 없는 인생을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에 투자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캐나다 위클리프 선교회 소속 선교사부부였던 갈랜드와 메이비스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민족에게 성경을 번역해 주는 것이야말로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삶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1997년 위클리프 캐나다 선교사로 허임되었습니다. 그 후 언어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중앙아시아의 한민족에게 성경을 전하고자 1999년 2살된 큰아이와 3개월된 딸을 데리고 러시아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떠나기까지 캐나다의 한국인으로서 저희 앞에 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주고 인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교에 대한 이해는 '교회개척과 제자화 훈련'이라는 의식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성경번역이라는 특수 선교사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선교를 앞두고 동역자들을 모으는 과정에서 저희는 마치 커다랗고 두꺼운 벽을 뚫어야 한다는 것 같은 절망감과 외로움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신실하게 기도의 동역을 결심한 기도팀이 만들어졌고, 파송교회와 후원교회들

I had a dream in my youth, a dream of investing only one life on things that would last forever, not on things that are here today but gone tomorrow. During my young adult days, Wycliffe representatives, Garland and Mavis Hoel showed endless interest and love in my wife's life and mine. Their genuine love helped us to see an eternal purpose in giving the Word of God to those who don't have it. So, we committed ourselves to the task of Bible translation and were accepted as Wycliffe Missionaries in 1997, the first Korean-Canadian members. After finishing a Masters degree in Applied Linguistics, we left Canada for Russia to translate the Bible into a language group in Central Asia. Our son was two years of age and our daughter was four months old.

Our journey up to that point was very rough as no Koreans from Canada had gone before us to guide us and give us necessary advice. Our home constituency's understanding of missions was, by and large, doing church planting, evangelism, and discipleship, but not Bible translation. We felt very lonely and disappointed, facing a huge, thick wall that needed to be penetrated. By God's grace, a group of people, although few in numbers but strong in faith and character, was formed to pray. Churches stood behind us. 9 years have passed.

이 생겨 났고, 그결과로 인해 번역사역을 계속해온지도 어느덧 9년이 흘러갔습니다.

1999년 러시아에서 현지훈련과 러시아어 습득을 마친 후 2000년도에는 카스피해연안의 한 국가에 있는 우디민족에게 성경을 번역해주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그 후 2008년 7월까지 성경번역과 문자사역 (알파벳 정립), 문맹퇴치사역(교과서, 책편찬)과 현지인 번역자 훈련등의 사역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처음 4년간의 시간은 그야말로 척박한 땅을 가는 농부의 심정으로 황량한 밭을 일구고 돌을 가리고 풀을 뽑아내는 작업을 해 온 것 같습니다. 러시아어 외에 그나라의 국가 공용어와 우디언어를 더 배워야 했고 특히 글자가 없는 우디어를 배우는 것은 정말 큰 도전이었습니다. 이 사역 기간에도 위클리프 소속의 다른 동료 선교사가 없이 저희 부부의 힘으로 문자사역부터 번역사역에 이르기까지 이루어가야하는 개척의 길이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현지에서 우디말을 하는 사람은 아내와 저밖에 없었고, 고립에서 오는 외로움, 세 가지 언어와 씨름해야하는 큰 장벽, 꿈



을 통해 아이들을 공격해오는 어둠의 세력과의 영적전쟁과 또 현지인 언어학자의 압박등으로 인해 저희는 거의 사역을 포기할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글자(알파벳)가 만들어졌고 교과서와 책들을 통해 쓰고 읽을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 갔고, 요나서와 롯기,누기복음과 창세기가 번역되었으며 현지인 번역자 두 명과 성경번역감독가 한 명 그리고 문맹퇴치사역자 한 명을 훈련할 수 있었고 지금은 그들의 손에 의해 계속 성경번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결과로 그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고 성경번역 사역에 가담하고 있는 현지 번역자들 모두가 교회의 지도자들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999년 캐나다를 떠나면서 우리의 목적은 현지인들을 훈련하고 그들이 스스로 설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08년 그 목적이 달성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교지에서의 목적이 달성된후 다음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있던 중 저희가 속해 있는 구소련지역의 단체에서 아내와 저에게 여러가지 다른 사역들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After finishing a Russian language study and field training, we moved to a country in the Caucasus to translate the Bible into the Udi language. Since then, we were involved in alphabet making, literacy work, and Bible translation, as well as training local colleagues until July 2008.

Our first four years seemed ineffective and fruitless just doing ground breaking work. We had to learn two more languages in addition to the Russian language. It was a daunting challenge to learn Udi which had no written alphabet. In the beginning stage of our Bible translation ministry, my wife and I were pioneers. We were the only members of our organization on location.

My wife and I were the only foreigners who spoke the Udi language there. We suffered isolation, loneliness, language barriers, spiritual warfare, and persecution. We were seriously considering packing up and going home.

By God's grace, the alphabet was established officially and primers and reading materials were produced. Jonah, Ruth, Luke and



Genesis have been translated. Also, two local translators, one exegetical advisor, and one literacy specialist were trained and they are carrying out the translation project at this time. As a result, the church was established and all local colleagues involved in Bible translation serve as leaders of their church. Our ministry goal from the beginning was to build capacity and sustainability in the community. By God's grace, our goal was accomplished in 2008.

Our group, which covers the Former Soviet Union, suggested several ministry options while we were praying for the next phase of our ministry. As we earnestly sought God's direction, He has given us a vision of "building up My wounded workers."we feel led to establish a training/recharging centre for both pre field and furloughing missionaries in order for them to carry out their work effectively and strategically.

Three areas came to our mind:

기도하던중 하나님께서는 “나의 부상당한 군사들을 튼튼하게 세우라” 는 비전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훈련/재충전센터를 세워 예비선교사나 베테랑선교사들이 세 가지 분야에 서로 도움을 받고 효과적이며 전략적으로 선교지역을 감당하도록 도와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습득 훈련입니다. 언어구사능력은 사역의 질을 가늠할 뿐만 아니라 선교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희가 세 가지 언어를 습득하며 배웠던 가장 최근의 언어학적인 이론과 임상실험 결과를 토대로 선교사들의 언어습득을 효과적으로 도와 주려 합니다.

두 번째는 상담입니다. 지난 9년간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상처받고 아파하는 많은 선교사 가정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은 귀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역에도 열심을 내어 일하고 있지만 누구도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그들의 상처를 돌봐주고 싸매주지 않기에 그들의 사역이 비효과적이고 심지어는 깨어질 위험까지 안고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이해하는 전문 상담가가 그들에게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임을 느꼈습니다.

세 번째는 코칭/지도자양성입니다. 헌신하고 선교사역에 열성을 다해 사역하지만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잘 사용하지 못하고 사역에 기쁨이 없이는 내는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극대화해서 즐겁고 신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역의 모든 비탕에 끊임없는 깊은 영적성숙과 그리스도의 인격을 추구할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받으시고 우리는 효율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러한 비전을 앞에 두고 또 다시 10여년 전에 느꼈던 커다란 광과 두꺼운 벽을 마주 대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10년 후인 오늘 순종의 결과로 코카서스의 한 민족에게 글자가 만들어지고 성경이 번역되었으며 지도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10년 후에는 성경번역선교사를 포함한 많은 하나님의 군사들이 받은 상처를 치료받고, 지쳐있는 영육이 쉬를 얻으며 잘 훈련되어 기쁘고 신나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꾼들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주님나라 갈 날까지 지키고 보호하고 책임지는 분이시라 믿습니다.

지금도 세계 각 처소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부상당하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많은 하나님의 군사들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보살피 주신다고 믿기에 또 다른 개척의 길을 떠나려 합니다. 10여년 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품은 숨겨진 백성들을 저희에게 보내주심으로 함께 동역의 길을 걷게 하셨듯이 이사역을 위해 하나님께서 또다시 준비해놓으신 숨겨진 백성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이 개척의 길을 떠나려 합니다. 🌱

Language Acquisition

Being able to communicate freely not only determines the quality of one's ministry but also the quality of life. Based on our experiences of learning three languages and linguistics training along with field training, we want to help workers to learn a language(s) as effectively as possible.

Counseling

God has sent us a number of families that are wounded and in pain. Although they do the work of God faithfully, as mature people, nobody seems to address the deep needs they are facing by taking care of their wounds. Consequently, some face the dangerous situation of collapsing the ministry they are called to do. They need professional counseling from someone who has been there.

Coaching/leadership development

We have seen workers who are gifted and talented in many ways not being able to use their gifts effectively for the glory of God. We want to help them to maximize God-given gifts and thrive in what they are doing so their ministry will be joyful and effective. We realize the foundation of what missionaries are doing should be based on spiritual maturity and Christ-like character to be effective.

Looking ahead with this vision, we feel we are facing another huge, thick wall similar to the one we faced more than 10 years ago. However, God has blessed a people group in the Caucasus with an established writing system, portions of the Bible, trained workers, and church in their midst after 10 years of our obedience. We envision God's wounded workers getting healed, cared for, recharged, rested, and re-equipped. As a result, they will be more effective in expanding the Kingdom of God. We believe that God not only calls His people for a cause, but takes care of them until we see Him face to face.

We are taking yet another pioneering journey trusting that God has not forgotten those who serve Him faithfully in every corner of the world. Many of them are wounded, worn out, and exhausted. Just like 10 years ago, we are taking this journey with God's people who appear to be hidden now but are gradually being revealed according to His great plan. 🌱

캐나다 한인 선교사 기도 제목

강창석/사라 선교사 (한인사무국 디렉터)

- 한인선교사 후보생을 계속해서 보내주심에 감사. 허업 신청 중인 분들이 주님의 각별하신 은총 가운데 선교에 헌신토록
- 미국과 공동 개최하는 GLocal Conference 2009의 부족한 점들이 보완되어 더 은혜롭고 유익한 행사가 되고, 참가 교회들이 선교중심교회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도록
- 동원사역에 힘쓰는 선교사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은혜가 더하시고, 건강/지혜/용기/능력 주셔서, 숨어 있는 젊은 인재들을 찾아내도록
- 건고하고 원활한 탐외으로 동원사역자들이 각자의 은사를 충분히 발휘하여 동원사역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며, 저희 부부가 쉬지 않고 중보하며 서로 격려하도록
- TJ작은 아들이 신실한 배우자 만나 주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복된 가정을 이루도록

김영수/김미자 (어진, 하은, 조엘) 선교사 (아시아 성경번역/ 선교사 재훈련프로그램 연구개발)

- 선교사 훈련센터의 비전이 구체화 되도록
- 다음 사역을 위한 기도, 재정 동역자들 보내주시도록
- 코카서스에서의 성경번역이 계속 잘 진행되도록
- 가족 모두 역문화충격 잘 이겨내도록

박요섭/조선향 선교사 (동원, 해외사역 준비)

- 그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해외사역지와 사역 내용이 잘 결정되고 준비되며, 진정한 의미에서 '함께하는 성경 번역' 이 되기 위해, 기도와 재정으로 동역하실 교회와 개인들을 세워 주시도록
- 서부지역 한인디아스포라 선교동원을 위해 지역교회들과 선교단체들이 잘 연합할 수 있도록
- 한인사역 웹페이지가 잘 준비되어 관심자들을 돕도록

L 선교사 (아시아/성경번역, 지역 부디렉터)

- 하나님 아버지 되 더 친밀한 관계 속에, 저를 향한 아버지의 계획을 더욱 잘 알아 동참할 수 있도록
- 많은 기관들과 좋은 협력 관계를 쌓을 수 있는 지혜 얻도록
- 올 여름에 home-assignment로 떠나기까지, 현지사역 잘 감당토록

윤기태/양희숙 선교사 (인사행정, 동원)

- 바빠질 인사부 행정사역—특히 후보선교사들의 허업수속에 차질이 없도록!
- 글로컬 컨퍼런스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섬기도록!
- 영력 얻어 모든 사역이 영적으로 지속되도록!

알버트/마르다 (이삭) 선교사 (아프리카/성경번역, 컴퓨터)

- 온 가족 하나님께 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충만하고 건강하도록.
- 언어의 진보와 지혜로운 부모일 수 있도록
- 이곳의 성경번역 사업과 번역자들을 지켜주시길
- 현지인 교회와 교인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된 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도록

이규준/한진숙(광표, 준표) 선교사 (동원)

- 지난 한해도 동역해주신 여러분들과 교회께 감사
- 글로컬 컨퍼런스(2월), 첫걸음선교이야기(본 한인교회-3월), 서머나교회선교학교(2-4월) 등 잘 섬길 수 있도록
- Perspectives 코스 코디네이터 자격 주심에 감사.
- 여러 선교단체와 교회가 연합하여 좋은 훈련사역 이뤄지도록

홍현민/귀주 (지수, 은수) 선교사 (국제본부/ 씨 부디렉터)

- 온유와 인내 그리고 담대함을 주시도록
- 세계 한인 교회 지도자들, 한인 선교사들과 친밀한 교제와 협력이 일어나도록
- 위클리프 지도자들이 교회와의 동역에 대한 생각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아시아인 교회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도록
- 협력 교회와 후원자들을 보내 주시도록
- 모든 가족이 하나님께로만 피하도록

TRANSLATING Scriptures TRANFORMING Lives

Upcoming Events

글로벌 컨퍼런스 (GLocal Conference@Orlando, Feb. 16~18)

캐나다와 미국의 지역교회 담임목사님들과 선교관련 담당자들이 함께 모여 선교의 남은 과업 달성을 위한 전략적 접근과 협력의 방법을 모색하고서로 나눕니다.

Upstream 성경번역홍보 콘서트

(Upstream's BT promotion concert@Mokmin Ch, in March)

업스트림과 위클리프가 함께 하는 성경번역 홍보 콘서트가 오는 3월 목민교회에서 열립니다.

천 길의 선교이야기 (Missions 101@Vaughan Comm. Ch, in March)

여러 가지 활동과 토론 강의 등을 통해, 실감나고 재미있고 쉽게 선교의 총체적 이해를 돕는 프로그램으로, 본 한인교회에서 한 달에 걸쳐, 매 주 수요일과 주일 오전 촌모임 시간에 이뤄집니다

잘스 비전 여행 (JAARS Vision Trip, in May)

성경번역선교를 위한 종합기술지원센터인 잘스에서 선교사역기반 구축이 얼마나 중요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종류의 선교사역이 필요함을 전략적으로 깨닫고, 섬기는 자세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재정후원안내

위클리프 성경번역선교회는 신실하게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선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각 선교사들은 기본적인 생활비를 포함한 모든 물질적인 필요를 그리스도인 개인들과 교회로부터, 선교사와 재정 동역자 모두에게 축복이 되는 헌금을 통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위클리프는 비영리 기관으로 자격을 인정받고 있으므로 모든 지역비와 활동을 위해 보내는 헌금들은 세금공제 대상이 됩니다. 재정 동역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선교사나 특별한 프로젝트를 지정해서 헌금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재정후원 방법은 한인사무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캘거리본부
Wycliffe Bible Translators of Canada
4316 10 St NE Calgary, AB T2E 6K3
403.250-5411 / 1800.463-1143
www.wycliffe.ca

한인사무국(Korean Ministries)
동부사무실 416.675-6473
#4, 14 Steinway Blvd. Tor. ON, M9W 6M6
강창석 선교사/ 이규준 선교사
416.996-0345/416.888-2262
Kroffice_Canada@Wycliffe.ca

서부사무실 Wycliffe BC Office
604.881-1059
7600 Glover Rd. Langley, BC V2Y 1Y1
박요셉 선교사 778.889-9845
Joseph-Joyce_Park@Wycliffe.ca